

4/16/17

설교 제목: 완전하신 하나님의 섭리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욥기 42:1-17

- (욥 42:1)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 (욥 42:2)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 (욥 42:3)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절관주** 욥 38:2
- (욥 42:4)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절관주** 욥 38:3
- (욥 42:5)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 (욥 42:6)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 (욥 42:7)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데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절관주** 욥 32:3, 욥 40:3-5
- (욥 42:8) 그런즉 너희는 수소 일곱과 숫양 일곱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절관주** 민 23:1, 약 5:16
- (욥 42:9) 이에 데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 (욥 42:10)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 (욥 42:11)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케쉬타 하나씩과 금 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잠 19:4, 욥 19:13
- (욥 42:12)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만 사천과 낙타 육천과 소 천 여리와 암나귀 천을 두었고 **절관주** 욥 8:7
- (욥 42:13) 또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두었으며 **절관주** 욥 1:2

- (욘 42:14)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곳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 (욘 42:15) 모든 땅에서 욘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 (욘 42:16) 그 후에 욘이 백사십 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사 대를 보았고 **절관주** 창 50:23
- (욘 42:17) 욘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본문은 욘기의 결론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천상 회의, 그 결과로 욘에게 내려진 재앙과 그로 인한 욘의 탄식, 욘과 세 친구들인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의 설전, 엘리 후의 말, 그리고 하나님의 두 차례에 걸친 말씀과 욘의 두 차례 답변 등을 거쳐 본문을 마지막으로 마침내 욘기는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1. 1-6 절: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에 대한 욘의 두 번째 답변 부분
2. 7-9 절: 하나님이 그동안 세 바퀴를 돌면서까지 참여하게 대립했던 욘과 세 친구들 사이의 설전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리시고 욘에게 세 친구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부분
3. 10-17 절 욘이 회복되어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는 부분

1. 첫 단락인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에 대한 욘의 답변을 보겠습니다.

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부당하다는 생각으로 껍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욘의 짧은 지식과 유한한 능력으로는 도무지 당신의 섭리를 알 길이 없다는 것을 철저히 일깨워 주신 하나님의 두 번에 걸친 말씀을 듣고 욘은 변화됩니다.

욘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답변으로 비천한 자신이 감히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며 다만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욘 40:1) 여호와께서 또 욘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욘 40:2)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 40:3)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 40:4)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랴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에 대한 답변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주권적 자유를  
깨닫고 인정합니다.

(욥 42:1)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 42:2)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욥 42:3)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동안 욥은 의로운 자신이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에 대해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  
인과응보론과 추수의 법칙에 사로 잡혀 있던 욥에게 자신에게 발생한 고난은 도저히 납득할 수  
도 이해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그가 이제 자신에게 닥친 부당한 고난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 자유이고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임을 깨닫게 됩니다.

욥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든 것을 회개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욥 42:5)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욥 42:6)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동안 욥은 하나님에 관해 수도 없이 들었고 배웠으나 그 '듣고 배운 하나님'은 욥이 고난에  
빠지게 되자 어떤 위로나 해결책도 제시해 주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답답함과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 직접 말씀을 들음으로써 은총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적 자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받는 부당한 고난에 대해 하나님께 따진 것을 회개합니다.

2. 하나님께서 욥과 세 친구들 사이의 논쟁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리시고 욥에게 세 친구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한 중보 기도를 지칭하십니다.

(욥 42:7)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데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욥 42:8) 그런즉 너희는 수소 일곱과 숫양 일곱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욥 42:9) 이에 데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하나님은 세 친구들의 공박이 겉으로는 신앙적이며 모범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옳지 않다고 판결을 내리시면서 욥의 손을 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욥의 세 친구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용서받기 위해 욥을 찾아가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대로 욥에게 번제물을 가지고 가서 자신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드려 자신들의 죄가 사함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청합니다.

그들의 요청에 따라 욥이 세 친구들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세 친구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이 부당하고 신비하기까지한 고난을 받았듯이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욥이 세 친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렸을 때 그들의 죄가 사함 받을 수 있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려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자신을 괴롭혔던 친구들을 위해 번제를 드리느냐 마느냐는 전적으로 욥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의 주권적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켜 주시느냐 마느냐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느냐 마느냐도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 자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욥이 자신을 괴롭혔던 친구들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린 것이나 하나님께서 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나 모두 어떤 조건을 정해 놓고 당사자들이 그 조건을 충족해서 그렇게 해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도 하나님도 어떤 조건도 내걸지 않고 사랑과 은혜로 그렇게 해 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어떤 조건도 내걸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우리 대신 죽어 주신 것입니다.

### 3. 욥의 회복과 갑절의 축복

욥이 세 친구들을 위하여 중보하자 세 친구들이 죄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욥 자신도 회복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욥 42:10)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하나님은 먼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욥 42:11)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케쉬타 하나씩과 금 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욥은 피부병으로 인하여 공동체로부터 소외되어 사회적으로 매장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멀리했던 형제, 자매, 지인들이 다시 욥을 찾아 와서 위로하고 선물까지 줍니다.

하나님은 재산을 갑절로 갠 주셨습니다.

(욥 42:12)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만 사천과 낙타 육천과 소 천 거리와 암나귀 천을 두었고

욥이 잃어 버렸던 재산은 양이 칠천이었고 낙타가 삼천, 소와 암나귀가 각각 오백이었습니다.

(욥 1:3) 그의 소유물은 양이 칠천 마리오 낙타가 삼천 마리오 소가 오백 거리오 암나귀가 오백 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자녀 열을 더하여 주십니다.

(욥 42:13) 또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두었으며

(욥 42:14)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겿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복이라 이름하였으니

(욥 42:15)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다른 것들은 모두 두 배로 갠 주셨는데 자녀는 왜 두 배인 이십 명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죽은 자녀 열 명을 육체적으로는 죽었지만 영원히 산 것으로 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욥에게 열 명의 자녀를 추가로 줌으로써 이십 명의 자녀를 주신 것입니다.

건강도 회복시켜 주셨고 장수의 복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욥 42:16) 그 후에 욥이 백사십 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사 대를 보았고

(욥 42:17)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욥기는 우리에게 인과응보론, 추수의 법칙을 하나님의 공의라 생각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은 이 질서가 실현되어지는 곳이라고 여기는 욥을 비롯한 세 친구들을 통해 과연 인간이 이러한 질서를 벗어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가?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탄을 통해 천상 회의에서 욥이 신앙 생활을 잘하는 것이 다 이유가 있지 까닭없이 그러겠냐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리고는 욥이 신앙 생활을 잘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울타리를 쳐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송사를 합니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주장하시는 하나님과 다 까닭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탄과의 내기가 천상에서 벌어지는데 욥이 재산과 자식, 건강 모두를 잃어버리는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욕하지 않음으로써 사탄이 두번에 걸친 내기를 집니다.

욥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욥을 위로해 준답시고 온 세 친구들의 신앙관과 가치관입니다. 이들은 옛부터 내려 오던 전통 사상인 인과응보론과 추수의 법칙을 가지고 욥을 공박합니다. 욥에게 어찌 까닭없이 이런 엄청난 고난이 내려졌겠느냐? 욥이 고난을 받는 것은 그의 지은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회복되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인과응보, 추수의 법칙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의 전부라고 하나님의 섭리를 너무 편협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함부로 말을 한 것입니다.

욥기는 이런 편협한 하나님의 공의에 기반을 둔 인간 중심적인 가치관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인과응보론이나 추수의 법칙이라는 인간의 공로를 강조하는 데에 신앙의 기반을 두면 우리는 필연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율법주의자들이 되어 정해 놓은 율법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심판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당한 고난을 받으시는 중에도 하나님의 통치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죽을 수 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려 내신 것입니다.

욥기는 공의의 차원을 뛰어 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 주고 있는 책입니다.

욥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는 'give and take'식의 신앙, 즉 하나님께서 우리 행위에 따라 그대로 갚아 주신다는 강박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유를 인정하고 우리에게 부여된 자율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노라면 내가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괴로와하며 강도사인 저를 붙잡고 하소연하며 이유를 물어 오기도 하지만 저도 아는 것이 없는 지라 시원하게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완전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감히 그 분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어 당장 답답하고 힘이 들지만 그렇더라도 완전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기대하며 지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한 당신의 뜻을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직접 택하신 우리를 통해 당신의 위대하고 완전한 계획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